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마라톤 현장 서 큰 호응...“은퇴해도 든든하게”

박나라 기자 | 승인 2025.04.07 17:38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윤봉길 마라톤대회서 농업인 은퇴지원 제도 홍보 박차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는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제21회 윤봉길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충남형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홍보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직원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수)는 지난 6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1회 윤봉길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집중 홍보했다.

현장에 마련된 홍보부스는 참가자들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충남 본부와 예산지사 직원 40여 명은 직접 마라톤에 참가해 사업의 필요성과 혜택을 널리 알렸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할 경우, ha당 월 50만 원씩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땅값 외 정기적인 직불금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약 2500명의 농업인이 이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으로 ha당 월 41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최대 ha당 연 11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고령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민수 본부장은 "홍보부스를 찾아주시고, 홍보물을 등에 부착한 채 함께 달려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충남형 은퇴직불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고령 농업인의 인생 2막을 돕는 의미 있는 제도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배포된 리플릿과 안내자료는 빠르게 소진되며 지역사회와 농업 현장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충남도와 농어촌공사는 향후 주요 축제와 행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나라 기자 nara79@aflnews.co.kr